

東亞日報 第四千四百十六號 附錄

新綴字便覽

東亞日報社



三 意

이 책은 新綴字에 關한 法則을 說明한 것이 아니요 다만 新舊 綴字를 對照
함에 그치었다。每 語例마다 上下 二段으로 나누고 新、舊를 각기 比較하여 例
으니、의례히 舊를 버리고 新을 取할 것이다。갑자기 從來에 쓰든 것을 버리고
새것을 좃으려면 每양 잘못 쓰기 쉬울 念慮가 없지 못할 것이다。그러므로 반
드시 이에 深刻的 注意를 加하여야 할지며、만일 조금이라도 未詳한 點이 있거
든 차라리 在來에 쓰든 그대로 두는 것이 多리어 善을 것이다。

一、의 使用를 廢하고 ㄷ ㄷ ㄷ ㄷ 等으로 代用함。

ㅏ로 쓰이는 것

新 舊

남(他人) 남

사람(人) 사람

사랑(愛) 사랑

하다(爲) 하다

ㅏ로 쓰이는 것

더러(도) 더러

더리다(與) 더리다

버리다(棄) 버리다

다섯(五) 다섯

여섯(六) 여섯

일컫다(稱) 일컫다

ㅏ로 쓰이는 것

며누리(婦) 며누리

바늘(針) 바늘

하늘(天) 하늘

하누님(上帝) 하누님

ㅏ로 쓰이는 것

거느리다(率) 거느리다

는(도) 는

오늘(今日) 오늘

반드시(必) 반드시

아들(子) 아들

거스리다(逆) 거스리다

다스리다(治) 다스리다

스스로(自) 스스로

스룩(도) 스룩

가슴(胸) 가슴

말슴(言) 말슴

벼슬(官) 벼슬

ㅏ로 쓰이는 것

마침(竟) 마침

아침(朝) 아침

ㅏ와 ㅏ로 쓰이는 것

마음(心) 마음

가르치다(敎) 가르치다

만들다(造) 만들다

〔備考〕 ㅏ를 『아래ㅏ字』라 하여 ㅏ와 같이 發音하는 것은 크게 잘못이다。이전에

ㅏ로 쓰든 것을 ㅏ로만 고쳐 쓰면 그만일 것이다。 크게 잘못이다。 다만 그

二、 必要한 境遇를 除한 外에는 ㅏㅏㅏㅏ의 合用을 쓰지 아니함。

新 舊

뒤기(彼處)

더기

점심(午飯)

점심

좋다(好)

도라

섬(島)

섬

소경(盲)

소경

수수저끼(謎) ㅅㅅ저끼
 쉰고리(上衣) 쉰고리
 쉰(奴) 쉰

쉰(僧) 쉰
 쉰쉰이(徐徐히) 쉰쉰히
 초(醋) 초

쉰쉰하다
 쉰하(天下) 쉰하

〔備考〕 但 말을 省略하여 쓸 때에는 「더, 처, 처, 처, 더」에만 限하여 쓸수 있음.

例 더디어(遲하야)를 더더로
 마시어(飲하야)를 마쳐로
 하시엇다를 흥섯다로
 지어(負하야)를 처로
 가지어(持하야)를 가쳐로

바지어(溺하야)를 빠쳐로
 치어(打하야)를 처로
 고치어(改하야)를 고쳐로
 미치어(及하야)를 미쳐로
 버디어(抗하야)를 버더로

新 舊
 쉰(家什) 쉰간
 쉰(體面) 쉰면
 쉰(層) 쉰

계집(女) 계집
 계시다(居) 계시다
 쉰(第一) 쉰일

켄덜(白髮) 쉰다
 쉰사(祭祀) 쉰사
 처(飾) 처

체롭다(煩弊) 체롭다

〔備考〕 「계」는 혹 一部分에서 發音이 되는 곳도 잇으나 多數를 좃아 쓰지 않기로 한 것이며, 「피, 베」 등은 適當한 語例가 없으므로 例를 들지 아니함.

四、나는 「ㅇ」을 除한 外에 一般 닿소리(子音)와 合用함을 쓰지 아니함.

新 舊
 여기(此處) 여기
 기운(氣) 기운

느림(速) 느림
 마디(節) 마디
 어디(何處) 어디

더디다(遲) 더디다
 거미(蜘蛛) 거미
 이미(既) 이미

나비(蝶)

나비

빈집(空家)

빈집

시집(嫁)

시집

시르죽다(氣乏)시르죽다

리눈(鷄眼瘡) 리눈

치중병(輻重兵)치중병

키(身長)

키

티(埃)

티

〔備考〕 「과」는 혹

一部에서 發音이 되는 곳도 잇으나 多數의 口音은 嚙아 쓰지

않기로 한것이며, 「리, 직」 등은 適當한 語例가 없으므로 例를 들지 아니함.

五、두 音節 사이에 된소리(硬音)로 나는 말들은 그것에 각기 語源의 뜻이 없음에 限하여

는 다 같은 된소리(子音)로 連記함.

人바침이 ㄱ ㄷ ㄴ 스 等

이끼(苔)

잇기

소리와 合하든 것

토끼(兎)

툫기

新

舊

가깝다(近)

갓깝다

이따금(間或) 잇다금

아깝다(可惜)

앗깝다

어떠하다(如何)엇더하다

어깨(肩)

엇개

귀뚜라미(蟋蟀)궤뚜라미

두껍다(厚)

두텁다

부두막(竈臺) 붓두막

거꾸러지다(倒)엎구러지다

가득하다(滿) 갓득하다

바꾸다(換)

밭고다

따뜻하다(溫) 섣뜻하다

자꾸(數)

자꾸

자빠지다(沛) 잣바지다

깨끗하다(潔)

썩끗하다

고별(感冒)

곳볼

느끼다(感)

늦기다

고비(響)

곳비

리적나다(裂隙)의적나다

피다(發)

피다

피우다(燃)

피우다

바빠(忙急히)

밭비

에쁘다(美)

엷쁘다

어쩌면(如何)

엇쩌면

여쭙다(告)

엷쭙다

어찌(何)

엇찌

人바침이 ㄴ 첫소리와 合하

든 것

만나다(逢)

맛나다

건느다(渡)

것느다

큰바침이 ㄴ 첫소리와 合하

든 것

달라다(請求) 달나다

又 바침

빛다(釀)	맺다(結)	맞다(迎)	늦다(晚)	낮다(低)	긋다(惡)	꽃다(插)	갓다(備)	젖(乳)	낮(晝)	얻다(得)	쏟다(瀉)	뻗다(伸)	번다(延)	받다(受)	믿다(信)	묻다(埋)	몰다(會)	뜯다(破)
빛고	맺고	맞고	늦고	낮고	긋고	꽃고	갓고	젓의	낮이	얻고	쏟고	뻗고	번고	받고	믿고	묻고	몰고	뜯고
빛지	맺지	맞지	늦지	낮지	긋지	꽃지	갓지	젓은	낮은	얻지	쏟지	뻗지	번지	받지	믿지	묻지	몰지	뜯지
빛으니	맺으니	맞으니	늦으니	낮으니	긋으니	꽃으니	갓으니	젓에	낮에	얻으니	쏟으니	뻗으니	번으니	받으니	믿으니	묻으니	몰으니	뜯으니
빛어	맺어	맞아	늦어	낮아	긋어	꽃아	갓아	젓으로	낮으로	얻어	쏟아	뻗어	번어	받아	믿어	묻어	몰아	뜯어

빛다	맺다	맞다	늦다	낮다	긋다	꽃다	갓다	젓	낮	엇다	쓱다	뻗다	번다	받다	밋다	뭇다	못다	쓱다
빛고	맺고	맞고	늦고	낮고	긋고	꽃고	갓고	커지	나지	엇고	쓱고	뻗고	벗고	밧고	밋고	뭇고	못고	쓱고
빛지	맺지	맞지	늦지	낮지	긋지	꽃지	갓지	커즌	나즌	엇지	쓱지	뻗지	벗지	밧지	밋지	뭇지	못지	쓱지
비지니	매지니	마지니	느지니	나지니	구지니	쇼지니	가지니	커케	나케	엇으니	쓱으니	뻗으니	벗으니	밧으니	밋으니	뭇으니	못으니	쓱으니
비려	매려	마자	느려	나자	구려	쇼자	가자	커즈로	나즈로	엇어	쓱아	뻗어	벗어	밧아	밋어	뭇어	못아	쓱어

잊다(忘) 잊고 잊지 잊으니 잊어
 잣다(澗) 잣고 잣지 잣으니 잣아
 젖다(濕) 젖고 젖지 젖으니 젖어
 짓다(呖) 짓고 짓지 짓으니 짓어
 찢다(裂) 찢고 찢지 찢으니 찢어
 찻다(毒) 찻고 찻지 찻으니 찻아
 버릇다(爬) 버릇고 버릇지 버릇으니 버릇어
 꾸짖다(叱) 꾸짖고 꾸짖지 꾸짖으니 꾸짖어
 부르짖다(呼) 부르짖고 부르짖지 부르짖으니 부르짖어

스 바침

잣(皮膚) 잣이 잣은 잣에 잣으로 잣도
 꽃(花) 꽃이 꽃은 꽃에 꽃으로 꽃도
 낯(面) 낯이 낯은 낯에 낯으로 낯도
 닳(鎚) 닳이 닳은 닳에 닳으로 닳도
 돛(帆) 돛이 돛은 돛에 돛으로 돛도
 몇(幾) 몇이 몇은 몇에 몇으로 몇도
 빛(光) 빛이 빛은 빛에 빛으로 빛도
 숯(炭) 숯이 숯은 숯에 숯으로 숯도
 옷(漆) 옷이 옷은 옷에 옷으로 옷도
 좃다(從) 좃고 좃지 좃으니 좃아

잇다 잇고 잇지 이지나 이쳐
 잣다 잣고 잣지 자지나 자쳐
 젖다 젖고 젖지 췌지나 췌쳐
 짓다 짓고 짓지 지지나 지쳐
 찢다 찢고 찢지 찢지나 찢쳐
 찻다 찻고 찻지 차지나 차쳐
 버릇다 버릇고 버릇지 버르지나 버르쳐
 꾸짖다 꾸짖고 꾸짖지 꾸지지나 꾸지쳐
 부르짖다 부르짖고 부르짖지 부르지지나 부르지쳐

갓 갓치 갓춘 갓헤 갓츠로 갓도
 낫 낫치 낫춘 낫헤 낫츠로 낫도
 닳 닳치 닳춘 닳헤 닳츠로 닳도
 돛 돛치 돛춘 돛헤 돛츠로 돛도
 몇 몇치 몇춘 몇헤 몇츠로 몇도
 빛 빛치 빛춘 빛헤 빛츠로 빛도
 숯 숯치 숯춘 숯헤 숯츠로 숯도
 옷 옷치 옷춘 옷헤 옷츠로 옷도
 좃다 좃고 좃지 좃츠니 좃차

발다(漑)	발고	발지	발으니	발아	밧다	밧고	밧지	밧으니	밧하
뱃다(吐)	뱃고	뱃지	뱃으니	뱃아	뱧다	뱧고	뱧지	뱧으니	뱧하
붙다(粘)	붙고	붙지	붙으니	붙아	붓다	붓고	붓지	붓으니	붓하
얕다(淺)	얕고	얕지	얕으니	얕아	얏다	얏고	얏지	얏으니	얏하
얇다(淺)	얇고	얇지	얇으니	얇아	엇다	엇고	엇지	엇으니	엇하
질다(濃)	질고	질지	질으니	질아	짓다	짓고	짓지	짓으니	짓하
흩다(散)	흩고	흩지	흩으니	흩아	훗다	훗고	훗지	훗으니	훗하
부름다(腫)	부름고	부름지	부름으니	부름아	부룻다	부룻고	부룻지	부룻으니	부룻하

표 바침

눈(沼)	눈이	눈인	눈에	눈으로	눈도	눈	눈히	눈은	눈해	눈호로	눈도
섬(薪)	섬이	섬은	섬에	섬으로	섬도	섬	섬히	섬은	섬해	섬호로	섬도
숲(林)	숲이	숲은	숲에	숲으로	숲도	숲	숲히	숲은	숲해	숲호로	숲도
앞(前)	앞이	앞은	앞에	앞으로	앞도	앞	앞히	앞은	앞해	앞호로	앞도
옆(側)	옆이	옆은	옆에	옆으로	옆도	옆	옆히	옆은	옆해	옆호로	옆도
잎(葉)	잎이	잎은	잎에	잎으로	잎도	잎	잎히	잎은	잎해	잎호로	잎도
진(藥)	진이	진은	진에	진으로	진도	진	진히	진은	진해	진호로	진도
무릎(膝)	무릎이	무릎은	무릎에	무릎으로	무릎도	무릎	무릎히	무릎은	무릎해	무릎호로	무릎도
형질(布片)	형질이	형질은	형질에	형질으로	형질도	형질	형질히	형질은	형질해	형질호로	형질도
깊다(深)	깊고	깊지	깊으니	깊어	깊다	깊고	깊지	깊으니	깊어	깊다	깊고
값다(報)	값고	값지	값으니	값아	값다	값고	값지	값으니	값아	값다	값고
깊다(深)	깊고	깊지	깊으니	깊어	깊다	깊고	깊지	깊으니	깊어	깊다	깊고

뒹다(拭)	뒹고	뒹지	뒹으니	뒹어	뒹다	뒹고	뒹지	뒹으니	뒹어
뒹다(束)	뒹고	뒹지	뒹으니	뒹어	뒹다	뒹고	뒹지	뒹으니	뒹어
뒹다(炒)	뒹고	뒹지	뒹으니	뒹어	뒹다	뒹고	뒹지	뒹으니	뒹어
뒹다(雜)	뒹고	뒹지	뒹으니	뒹어	뒹다	뒹고	뒹지	뒹으니	뒹어
뒹다(間拔)	뒹고	뒹지	뒹으니	뒹어	뒹다	뒹고	뒹지	뒹으니	뒹어
뒹다(編)	뒹고	뒹지	뒹으니	뒹어	뒹다	뒹고	뒹지	뒹으니	뒹어

ㄱ
바침

넛(醜)	넛는	넛이	넛에	넛도	넛	넛슨	넛시	넛세	넛스로	넛도
몹(配分)	몹은	몹이	몹에	몹도	몹	몹슨	몹시	몹세	몹스로	몹도
쌌(質)	쌌은	쌌이	쌌에	쌌도	쌌	쌌슨	쌌시	쌌세	쌌스로	쌌도
섰(結)	섰은	섰이	섰에	섰도	섰	섰슨	섰시	섰세	섰스로	섰도

ㄴ
바침

앉다(坐)	앉고	앉지	앉으니	앉아	안다	안고	안치	안지니	안쳐
엮다(加)	엮고	엮지	엮으니	엮어	언다	언고	언치	언지니	언쳐

ㅇ
바침

꿍다(批)	꿍고	꿍지	꿍으니	꿍아	윈다	윈고	윈치	윈지니	윈쳐
꿍다(斷)	꿍고	꿍지	꿍으니	꿍어	윈다	윈고	윈치	윈지니	윈쳐
많다(多)	많고	많지	많으니	많아	만다	만고	만치	만지니	만쳐
않다(不)	않고	않지	않으니	않아	안다	안고	안치	안지니	안쳐
엮장다	엮장고	엮장지	엮장이니	엮장아	언장다	언장고	언장치	언장지니	언장쳐

침잠다 침잠고 침잠지 침잠으니 침잠아
 팬참다 팬참고 팬참지 팬참으니 팬참아
 귀참다 귀참고 귀참지 귀참으니 귀참아

리 바침

꺾(脈路) 꺾은 꺾이 꺾에 꺾으로 꺾도
 꺾(巷) 꺾은 꺾이 꺾에 꺾으로 꺾도
 옹(代償) 옹은 옹이 옹에 옹으로 옹도

문 바침

함다(氾) 함고 함지 함으니 함아
 흉다(叔) 흉고 흉지 흉으니 흉어

편 바침

읊다(詠) 읊고 읊지 읊으니 읊어

령 바침

공다(餒) 공고 공지 공으니 공아
 공다(誤) 공고 공지 공으니 공어
 공다(沸) 공고 공지 공으니 공어
 땡다(耗) 땡고 땡지 땡으니 땡아
 땡다(隨) 땡고 땡지 땡으니 땡아

미 바침

굶(穴) 굶은 굶이 굶에 굶으로
 굶다 굶고 굶지 굶으니 굶어
 굶다 굶고 굶지 굶으니 굶어

(五) ㄷ바침과 ㄹ바침 부리에 '이'가 오면 ㄷ, ㄹ 등이 ㄱ 聲音化한 ㅈ, ㅊ의 소리

로 읽게 되니 ㄱ ㅈ 『곧이』가 『고지』로, 『밭이』가 『바치』로 發音하게 되는 것等。

八、즐기(語幹)의 바침이 줄어들거나 몸바 꾸이는 말이 잇으니 이것을 變格活用이라 함。

ㄹ의 줄어짐 例 놀다(遊) 노니 살다(居) 사니

ㅅ의 줄어짐 例 짓다(作) 지으니 낫다(癒) 나으니

ㅂ의 몸바꿈 例 덤다(熱) 더우니 눕다(臥) 누우니

ㄷ의 몸바꿈 例 들다(聞) 들으니 묻다(問) 물으니

ㅁ의 몸바꿈 例 슬프다(悲) 슬퍼서 아프다(痛) 아파서

ㄹ의 몸바꿈 例 오르다(登) 올라서 흐르다(流) 흘러서

九、두개 以上の 單말(單語)이 합하여 한 詞(品詞)를 이룰 때에는 그 單말이 각기 語源을 表示하기 可能한 것이면 그 原形을 保全하기로 함。

新 舊 웃음(笑) 우슴 꽃담다(芳) ㅂ담다

꽃놀이(花遊) ㅂ노리 ㄴ알(穀粒) ㄴ달 ㄴ베(晚稻) ㄴ베

살림살이(生活) 살넘사리 ㅂ돈(現金) ㅂ돈 ㅂ송이(花朵) ㅂ송이

품팔이(傭) 품파리 ㅂ신(草鞋) ㅂ신 ㅂ군(傭人) ㅂ군

앞잡이(前導) ㅂ자비 ㅂ세다(剛) ㅂ세다 ㅂ치다(對立) ㅂ치다

달맞이(迎月) 달마지 ㅂ시다(覆) ㅂ시다 ㅂ이다(放) ㅂ히다

놀음(遊) 노름 ㅂ음(遊) ㅂ음 ㅂ이다(蓋) ㅂ히다

울음(哭) 우름 ㅂ음(哭) ㅂ음 ㅂ이다(覆) ㅂ히다

걸음(步) 거름 ㅂ음(步) ㅂ음 ㅂ이다(放) ㅂ히다

쌓이다(積)	차하다
깎이다(削)	얇기다
닦이다(拭)	닦기다
붙이다(粘)	붙치다
긋기다(惱)	긋기다
닫기다(閉)	닫기다
뜯기다(破)	뜯기다
찢기다(裂)	찢기다
쫓기다(被逐)	쫓기다
맡기다(任)	맡기다
끊기다(斷)	끊기다
옮기다(移)	옮기다
걸기다(捲)	걸치다
닫기다(閉)	닫치다
묻기다(埋)	묻치다
뻗기다(延)	뻗치다
맞기다(中)	맞치다
맺기다(結)	맺치다
앉기다(坐)	안치다
놓기다(縱)	놓치다

낮후다(低)	낮추다
맞후다(合)	맞추다
숯후다(聳)	숯추다
떨어지다(落)	떨러지다
문어지다(壞)	문허지다
부어지다(毀)	부쳐지다
쏟아지다(瀉)	쏟다지다
쓸어지다(靡)	쓰러지다
없어지다(亡)	없혀지다
흩어지다(散)	흐러지다
꺾어지다(折)	억거지다
끊어지다(絶)	끊혀지다
줄어지다(縮)	주러지다
걸어가다(步行)	거러가다
돌아가다(歸)	드러가다
들어가다(入)	드러가다
일어나다(起)	이러나다
벗어나다(免)	버치나다
솟아나다(聳)	소사나다
몰아내다(逐出)	모라내다

쏟아내다(逐出)	쫓차내다
잃어버리다(失)	잃혀버리다
잊어버리다(忘)	이켜버리다
젓아들다(澗)	자자들다
얼어붙다(凍結)	어려붙다
놓아두다(放任)	노하두다
좋아하다(好)	조와하다
훑어보다(上下觀)	훑러보다
굳이(固)	구지
좋이(好)	조히
많이(多)	만히
깊이(深)	김히
높이(高)	놈히
같이(如)	갓치
없이(無하게)	업시
있이(有하게)	있시
날날이(箇箇)	낫낫치
목목이(每每)	목목시
앞앞이(每人前)	앞앞히
끝끝내(畢竟)	끝끝내

新 舊

이(齒)	니
이야기(話)	니야기
여름(夏)	녀름
옛적(昔時)	넛적
아이(兒)	아희, 아해
종이(紙)	조희
가루(粉)	가로
여우(狐)	여호
재주(才)	재조
도투리(椶實)	도토리
가운데(中)	가운데
얼굴(貌)	얼굴
동무(伴)	동모
자취(跡)	자취
스물(二十)	스물
거짓(假)	거짓
거짓말(虛言)	거짓말
마지막(終)	마즈막
오늘(今日)	오늘

하누님(上帝)	하나님
거문고(琴)	김은고
피꼬리(鶯)	외울이
코끼리(象)	코스질이
노래(歌)	놀애
소리(聲)	소래
이름(名)	일홀
조카(姪)	죽하
개미(蟻)	개암이
매미(蟬)	매암이
샘(泉)	새암
땅(地)	싸
이르다(至)	니르다
입다(衣)	님다
읽다(讀)	님다
이기다(勝)	이기다
모이다(會)	모히다
가두다(囚)	가도다
다투다(爭)	다토다
차우다(戰)	차호다

모시다(待)	외시다
미워하다(憎)	뉘워하다
여기다(思)	넛이다
사기다(刻)	삭이다
그치다(止)	긋치다
다치다(傷)	닷치다
마치다(終)	맛치다
미치다(及)	밋치다
나누다(分)	난호다
시키다(使)	식히다
건느다(渡)	것느다
만나다(逢)	맛나다
지키다(守)	죄히다
우거지다(茂)	욱어지다
드물다(稀)	드물다
머물다(留)	머물다
고프다(飢)	곱호다
아프다(痛)	압호다
슬프다(悲)	숯호다
살피다(察)	삼히다

十二. 출인말(畧語)인 경우의는 아레 말의 닻소리(子音)를 옷 말에 바침으로 轉上하게 함.

略語 原語

저우(僅)	저오	무릇(凡)	므릇	깨(토)	외
매우(甚)	매오	하물며(況)	하물며	깨서(토)	외서
모두(皆)	모도, 모다	아직(姑)	아즉	에게(토)	외게
너무(甚)	너모	무슨(何)	무삼	되어	되여, 되야
아무(某)	아모	먼저(先)	몬쳐	하든	하던
아무리(如何)	아모리	도리어(反)	도로혀	하든지	하던지
아무조록	아모조록	위낙	원악	하므로	함으로
고루(均)	고로	이미(既)	임의, 이의	하는데로	하는데로
꼴고루(均一)	꼴고로	함께(偕)	함외	하려고	하라고
따루(各異)	샤로	구려여(敢)	긋하여	하는데	하는데
바루(正히)	바로	차라리(寧)	찰하리	하였다	하였다
마주(相對)	마조	부러(自)	브러(불어)	합니다	합니다
자주(數)	자조	더부러(與)	더브러	합니다	합니다
조금(少)	조곰	하여금(使)	하야곰	하리까	하릿가

잇도록(至終) 마치고도록
 갖다주다 가지어다주다
 안하다(不爲) 아니하다
 았다(不爲) 아니하다
 이렇다, 이러라(如此) 이려하다

크렇게(如彼하)

그러하게

그렇든지

그러하든지

그렇고

그러하고

그렇지

그러하지

그렇다

그러하다

그러나

그러하나

그렇도다

그러하도다

그런즉

그러한즉

十三、複合된 이름씨(名詞) 사이에 서 되게 나는 소리는 아래와 같이 씀.

우에 말 끝이 홀소리(母音)인 경우에는 사바침을 붙임.

新

舊

잇몸

이름

촛불(燭火)

초사람

낚싯대(釣竿)

낚시사대

곳집(庫)

고사람

못자리(苗板)

모사람

기왓장(瓦)

기와사람

우에 말 끝이 닿소리(子音)인 경우에는 빼어버림.

新

舊

손가락(指)

손사람

봄바람(春風)

봄사람

콩가루(豆粉)

콩사람

[備考] 아래와 같은 말들은 두말이 서로

例 시가(時價)

시가(市價)

장군(將軍)

장꾼(市場人)

대수(代數)

대수(代의數)

문자(文字) 낱말(熟語) 문자(文字)

十四、同音異義의 말들은 될수 잇는대로 각기 달리 쓰는 것이 좋음.

가르치다(敎)

선생이 글을 가르치다.

먹이다(食)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

가리치다(指)

손가락으로 가리치다.

머기다(飼養)

그이가 닭을 머기다.

드리다(獻)

글월을 형님께 드리다.

바치다(呈)

사회를 위하여 몸을 바친다.

들이다(入)

곡식을 곳간에 들이다.

받히다(支)

손가락으로 하눌을 받힌다

부치다(寄)

친구에게 글일을 부친다.

붙이다(粘)

벽에다 광고를 붙인다.

버리다(棄)

돈지를 버린다.

벌이다(閉)

인을 벌이다.

불거지다(面出)

이나가 솟 불거지다.

불어지다(吹)

단풍이 점점 불어지다.

十五、異音同義의 말들은 아직 두가지를 다 쓸을 許容함。

구녁(穴)、구멍、구무、구

만들다(造)、맨글다

나무(木)、남

고르다(選)、골르다

넙(方)、넙

기르다(養)、길르다

나르다(飛)、날다

다르다(異)、달르다

그르다(誤)、굵다

모르다(不知)、몰르다

다르다(隨)、따다

오르다(登)、올르다

十六、漢字音은 다 表音式으로 쓸。 一、는 다 卜로 쓸。

新 간칠(懇切)

舊 근칠

갱생(更生)

갱성

내외(內外)

내외

대리(代理)

대리

매개(每個)

미리

발해(渤海)

볼회

사사(私事)

사사

생색(生色)

생식

아동(兒童)

으동

애칭(愛情)

인칭

자매(姊妹)

저리

재래(在來)

저리

차후(此後)

추후

책사(冊肆)

취사

형체가 작다。

수효가 적다。

김군과 가치 가갓다。

꽃과 같이 아름답다。

어렵지마는 하여야 한다。

이 일만은 꼭 하여라。

흐르다(流)、흘르다

너르다(廣)、넓다

찌르다(短)、짧다

담다(漬)、담그다

심다(植)、시르다

다니다(行)、땡기다

계엄(戒嚴)

계엄

제도(制度)

제도

폐쇄(閉鎖)

폐쇄

연매(連袂)

연매

체류(滯留)

체류

혜택(惠澤)

혜택

七、큰이 나크고 나기

우에서

첫소리로 될

때에는

나으로

變함。

낙원(樂園)

락원

누각(樓閣)

루각

내일(來日)

래일

노인(老人)

로인

농침(陵寢)

릉침

뇌성(雷聲)

뢰성

〔備考〕 但 單語의

첫소리

以外에는

다

原音대로

씀。

例 쾌락(快樂)

극락(極樂)

쇠로(衰老)

연로(年老)

고루(高樓)

칭두(層樓)

구릉(丘陵)

강릉(江陵)

거래(去來)

박래(舶來)

우뢰(雨雷)

낙뢰(落雷)

八、큰이 나크고 나기

우에서

첫소리로 될

때에는

다

오으로

變함。

양심(良心)

량심

요리(料理)

료리

이화(梨花)

리화

여관(旅館)

려관

유학(留學)

류학

예의(禮儀)

례의

〔備考〕 但 單語의

첫소리

以外에는

다

原音대로

씀。

例 개량(改良)

불량(不良)

기려(羈旅)

행려(行旅)

재료(材料)

염료(染料)

치류(滯留)

억류(抑留)

도리(桃李)

행리(行李)

무례(無禮)

혼례(婚禮)

九、나이 나크고 나기

우에서

첫소리로 될

때에

오으로

變함。

양(嬢)

냥

연세(年歲)

년세

이토(泥土)

노토

여자(女子)

녀자

요령(撓鈴)

뇨령

익직(溺職)

노직

〔備考〕 但 아래의

경우에만

原音대로

씀。

例 영낭(令嬢)

부녀(婦女)

남녀(男女)

금니(金泥)

十、나이 다른 글자 아래에서 큰로 變하는 것。

허락(許諾) 허락
기림(記念) 기념
관념(觀念) 관념

十一、아주 俗音化한 것은 原音을 버리고 俗音 그대로 씀.

俗音 原音

개인(個人) 가인
구성(龜城) 귀성
후욕(詬辱) 구욕
축현(楸峴) 뉴현
누계(累計) 류계
누수(淚水) 류수
묘지(墓地) 모디
일초(一秒) 일묘
폭원(幅圓) 복원

사령(邪念) 사념
회령(會寧) 회녕
재령(載寧) 재녕

부모(父母) 부부
무마(撫摩) 부마
취급(取扱) 추삼
초자(硝子) 소즈
김씨(金氏) 금시
인쇄(印刷) 인살
생애(生涯) 생아
명예(名譽) 명예
구역(區域) 구역
거재(去滓) 거즈

부모(父母) 부부
무마(撫摩) 부마
취급(取扱) 추삼
초자(硝子) 소즈
김씨(金氏) 금시
인쇄(印刷) 인살
생애(生涯) 생아
명예(名譽) 명예
구역(區域) 구역
거재(去滓) 거즈

十二、原音과 轉音 두가지가 잇는 경우에는 原音과 轉音을 다 씀.

轉音便 原音便

사랑(砂糖) 당분(糖分)
백동(白銅) 동전(銅錢)
서양(西曆) 책력(冊曆)
의논(議論) 이론(理論)

돈전(分錢) 분별(分別)
보리(菩提) 휴게(携提)
붕어(鮪魚) 철부(轍鮒)
추렴(聚斂) 취군(聚軍)
후추(胡椒) 산초(山椒)

개령(開寧) 개녕
안령(安寧) 안녕
야료(惹鬧) 야뇨

소상(昭詳) 조상
취미(趣味) 추미
래벌(答罰) 치벌
유기(鎗器) 투기
패권(霸權) 파권
파송(派送) 패송
붕대(繃帶) 멩대
숙면(熟苧) 숙하
도화(圖畫) 도화
효시(嚆矢) 호시

소상(昭詳) 조상
취미(趣味) 추미
래벌(答罰) 치벌
유기(鎗器) 투기
패권(霸權) 파권
파송(派送) 패송
붕대(繃帶) 멩대
숙면(熟苧) 숙하
도화(圖畫) 도화
효시(嚆矢) 호시

택내(宅內) 가력(家宅)
권동(箭筒) 룡계(箭契)
내인(內人) 내외(內外)
백천(白川) 백두산
부족(不足) 불가(不可)

유월(六月) 오륙(五六) 시월(十月) 십년(十年) 파월(八月)

오뉴월(五六月) 오륙월 양초(洋燭) 화촉(花燭)

十七、한개의 낱말(單語)이나 또 낱말에 도를 붙여서 한 덩이를 만들고 매 덩이마다 따루 따루 떼어 씀.

동아일보 조천민족의 표현기판이다.
 낱말 낱말 낱말
 토 토 토

본보는 一천九백十九年 四月 一일에 창간한 것이다.
 낱말 낱말 낱말 낱말 낱말 낱말
 토 토 토 토 토 토

월 四월 一일부터 본보는 十三단계를 실행하고, 천 지면은 모두 신철자법으로 쓰기로
 하

十八、符號 쓰는 법.

○ (동그라미) 한 월(文章)이 完結될 때
 에 씀.
 一 (느낌표) 感嘆詞 끝에 씀.
 () (괄호) 說明하는 뜻을 表함에 씀.
 「 」 (견괄호) 引用語에 씀.
 — (줄표) 文字의 뜻을 이음 때에 씀.
 …… (점줄) 아래 글에 줄일 때에 씀.

● (동글점) 單語와 單語 사이에 씀.
 ? (물음표) 疑問詞 끝에 씀.
 [備考] (一) 一은 붙는 말마다 다 쓰는 것이 아니요,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쓰는 것

하여 쓰기로 함。

아기가 밥을 먹소。(아이가 밥을 먹는다 란 말)

아기가 밥을 먹소?(아이가 밥을 먹느냐 란 말)

그 사람이 일을 부지런히 하오。(부지런히 한다 란 말)

그 사람이 일을 부지런히 하오?(부지런히 하느냐 란 말)

!도 그와 같은 때에 씀。

(二) 長音を 표할 때에 —는 쓰지 아니함。곳 『모—든, 머—』 곳 『等。長音符號는 따

로이 칭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略함。

(三) 疊字를 쓸 때에 『々』等은 조선 글에서는 도리어 不便하므로 쓰지 아니하

는 것이 좋으니, 筆記時에는 在來 朝鮮에서 쓰는 『々』을 쓸지니, 곳 『때々』 『출

렁々』으로 쓰고, 印刷時에는 『때때』 『출렁출렁』으로 쓸 것。

附 錄

항상 그릇 쓰기 쉬운 말들。

正 誤

가지다(持) 갖이다

갖은(具備한) 갖인

맞은(合한) 맞인

앉은(坐한) 앉인

같이(如히) 갖이

끝이(末이) 쫓이

밑이(底가) 뒷이

밭이(田이) 밭이

솥이(鼎이) 솥이

꽃에(花에) 풀에

낯에(面에) 낯에

맺히다(結히다)
 묻히다(埋히여지다)
 시키다(使하다)
 지키다(守하다)
 막히다(防히여지다)
 먹히다(被食)
 살피다(察하다)
 슬프다(悲하다)
 아프다(痛하다)
 고프다(飢하다)
 나누다(分)
 문어지다(壞)
 나아치(癒하야)
 곱와치(美하야)
 모아치(集하야)

맺이다
 묻이다
 식이다
 짚이다
 막이다
 멀이다
 삼이다
 슬으다
 앞으다
 고프다
 낡오다
 문어지다
 놓아치
 곱아치
 모아치

놀리다(使遊)
 돌리다(廻轉하다)
 홀륭하다(偉大하다)
 아니다(非라)
 맡기다(任置하다)
 잡히다(被執하다)
 들어가다(入하다)
 일어나다(起하다)
 하지마는
 놀이(遊)
 벌이(生活)
 우(上)
 (기포)
 깨(포)
 깨서

놀이다
 돌이다
 홀륭하다
 안이다, 양이다
 맡기다
 짚이다
 드리가다
 이어나다
 하지만은
 놀리
 노리
 버리
 용
 난
 피
 피
 피서

신철자법대로 쓰려면

고칠 것이 얼마나 될가

자과^기 남편이 갑작이^{자기} 경련을 이르^{일으}켜 잇는 사이, 중요한 직책을 대신 행하다가
렬차^열에 치어 죽은 곳센 책임감과 부부애에 결정이^남 나온 비극. —막이 경의
선에 생겼다.

사실은 二十七일 오전 六시 五十分경에 경의선 선천(宣川)역에 드러오는 제一
三一 열차가 선천 정거장에 드러가는 철도 길목을 통과하려할 지음에, 그길
목을 마^{말은}른 괴장이 김삼석(金三石)이가 바로 그때 갑작이^{자기} 경련을 이르^{일으}키어 땀
작 못하게 되^{엇으}므로, 열차를 통과시킬^{시킬} 남편의 책임을 진실히^{느끼} 늦기고, 그안
해 김귀녀(金貴女)(三三)가 곧 림시음^임빈으로 그대로 통과하라는 힌^힌괴와 만일의
경우에 정거하라는 붉은 괴^기를 들고서 나아가, 길은 막는 검술을 나^나리고 힌^힌
괴^기를 들^으엇스나, 검술이 일^일른 나^나려오지 안^안히, 길 저편의 줄을 나^나리려 철도를 가^가로

질러 가다가, ^힌 ^기 괴를 보고서 사정^{없이} 달려오는 ^기 괴차는
 十^여 미^를 돌 아^{앞에} 페^서 횡^단 하
 는 녀^자 를 보^고 서 급^정 거^를 하^려 하^였 스^나, ^때 는 이^미 느^뻗 어 드^뵈 어 ^적 즉^사 하
 고 말^었 다. 이^와 가^리 ^{같이} 병^중 의 남^편 을 간^호 하^는 녀^자 의 그 직^무 를 대^신 하^다 가
 순^직 한 조^선 의 녀^자 는 모^름 직^이 ^지 ^기 일^반 사^회 에 큰 충^동 을 주^고 잇^다.

— 신문 기사 의 一 種 —

여^쫄 말^습. 이^번 본^사 에^서 채^용 하^는 새 철^자 법^은 대^체 에 잇^어 서
 는 면^할 수 없^는 것^임 은 불^론 이^오 나, 표^준 철^자 법^이 확^정 되^기
 를 기^다 려 다^소 의 변^경 은 잇^을 는^지 모^름 니^다.